

진화론의 철학적 유형분석과 한·중·일 동아시아 수용의 경로*

유 봉 희**

요약

다윈은 19세기 말 기존 과학혁명에 지각변동을 불러온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것을 과학철학자들은 '다윈혁명'이라 불렀다. 다윈은 내적 속성이라는 동일성 사유와 본질주의, 그리고 목적론-결정론-기계론 등 그동안 서양을 지배해 왔던 전통적 세계관을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이후 지금까지도 진화론은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논의되었던 진화론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그 성격을 특징 짓고, 한·중·일 동아시아 수용의 경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진화론 수용을 동아시아 근대 담론 형성의 '기축(基軸)'으로 보았을 때, 작가들이 어떤 진화이론을 자신의 인식론의 토대로 삼아 식민지 주제 형성을 이루어나갔는지를 추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작가들이 이와 연동해 시대 담론들에 어떠한 대응 태도를 보였는지, 이것이 작품세계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하나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진화론, 근대소설, 근대문학사, 기계적 진화론, 윤리적 진화론, 상호부조 진화론, 창조적 진화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934)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교수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근대 진화론의 네 가지 유형
4. 유형별 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과 그 성격
5. 결론

1. 서론

중세가 기독교라면 근대의 상징은 과학혁명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일어난 이 패러다임 대전환의 주역들은 일반이 익히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케플러·갈릴레이·데카르트·뉴턴·라이프니츠 등이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허물고 기계론이라는 새로운 자연철학을 낳았다. 이들에 도전한 인물이 바로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었다. 다윈은 19세기 말 기존 과학혁명에 지각변동을 불러온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것을 과학철학자들은 ‘다윈혁명’이라 불렀다. 다윈은 내적 속성이라는 동일성 사유와 본질주의, 그리고 목적론·결정론·기계론 등 그동안 서양을 지배해 왔던 전통적 세계관을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이후 지금까지도 진화론은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두 작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1819-1880)과 토머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의 작품세계를 ‘다윈’이란 단일 코드로 해석한 질리언 비어(Gillian Beer, 1935-)는 그의 저서 『다윈의 플롯(Darwin’s Plot)』(남상태 역, 휴머니스트, 2008) 서문에서 “최근에 다윈은 회춘했다.(...) 그의 작업과 생애는 다시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학자·미생물학자·언어학자·사회생물학자·철학자·페미니스

트·심리학자·유전학자·소설가·시인·탈식민주의자 등등이 모두 제각기 할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한 이래 진화론은 이렇듯 아직도 뜨거운 논쟁 속에서 다양한 담론생산을 추동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문학을 상정할 경우 작가들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보아 제국주의의 속성을 추인하거나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내세워 이에 대항하려 하는 이항대립을 보였다. 그 항(項) 속에서도 미묘한 균열과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작품 속에 나타났다.

‘20세기의 다윈’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r, 1904-2005)는 다윈의 생물학이 어떻게 어떤 점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그의 진화이론에 접근했다. 이를테면 칸트·셸링·헤겔·쇼펜하우어·니체, 나아가 베르그손· 화이트헤드 등의 철학사상을 다윈 이론과 접목, 그 관계성 해명에 주력했다. 마이어의 이 같은 진화론 해석 방법은 근대문학 해석에서도 좋은 참조점을 던져준다. 예컨대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의 ‘생명철학’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1920년대 풍성했던 ‘생명 담론’ 해명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진화이론을 분석하지 않고는 베르그손과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대 작가들의 인식론에 대한 해명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다.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이 다윈의 진화론을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뿐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롯해 정치·사회·문화에 이르는 상호부조론·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입신출세주의·교양주의·문화주의 등 실로 우리의 근대를 지배했던 다양한 담론들이 진화론과 깊은 내적 연관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진화론·상호부조론을 비롯해 근대문학사에서 대두되었던 진화론을 철학적 관점에 방점을 둔 가운데 유형화(類型化)하는 작업이 우선일 터이다. 이 논문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논의되었던 진화론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그 성격을 특정 짓고, 한·중·일 동아시아 수

용의 경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진화론 수용을 동아시아 근대 담론 형성의 ‘기축(基軸)’으로 보았을 때, 작가들이 어떤 진화이론을 자신의 인식론의 토대로 삼아 식민지 주체 형성을 이루어나갔는지를 추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이와 연동해 시대 담론들에 어떠한 대응 태도를 보였는지, 이것이 작품세계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하나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분석은 필자가 나름 정립한 것¹⁾으로 생물학적 입장을 토대로 하지만 철학적 이해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다분히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근대의 진화론은 다윈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 유형은 다양했으며, 서로 충돌과 경쟁의 모습마저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작가들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 분석은 ‘어느 국가·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즉 진화론 수용의 관계망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어느 유형의 진화이론을 수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같은 유럽이지만 영국·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진화론의 성격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일부의 오해와 굴절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향후 동아시아 각국의 진화론 수용에 그대로 나타났다. 서양→일본·중국으로부터 수용된 한국의 진화론은 이처럼 유럽과 동아시아의 사상 연쇄를 전제해야만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진화론의 영향을

1)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2장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나름 정립’했다는 것은 위너(Philip Wiener, 1905-1992)가 주 편자인 『사상사 사전(Dictionary of the History Ideas)』(Scribner, 1978) 제2권 구지(Thomas Goudge, 1910-1999)의 「진화론」 해설편을 기초로 근대 진화론 논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헤켈·크로포트킨·헉슬리·베르그손의 진화이론을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의 흐름에 맞춰 필자가 독자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의미한다. 편의적이고 도식적이라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발신지인 유럽(영국·독일·프랑스) 각국의 진화론의 특성과, 발신자인 인물의 진화이론의 독자성을 분석할 때 이 문제는 불식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의 과정에서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굴절·변용·혼용 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하겠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할 작가별 진화론 수용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받지 않은 작가는 거의 없었다.²⁾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진화론은 시대마다 대세를 이루었던 담론들과 깊은 내적 연관성을 지녔기에 결국 어떠한 유형의 진화론을 수용했는가는 식민시대를 거쳐야만 했던 작가들의 작품 유형은 물론 개인적 행보와도 밀접한 관계망을 그리게 된다. 이 논문은 그 분석의 밑그림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개별 작가들의 유형별 진화론 수용과 작품 사이의 관계망 등은 추후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소설 텍스트와 진화론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최초의 단일 연구는 윤희로에서 출발했다.³⁾ 1980년대 후반을 넘어서었다. 이후에도 소설과 진화론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지만 그 폭과 깊이는 장구한 진화론의 역사에 비하면 왜소했다. 특히 ‘진화론=사회진화론’이란 고정된 인식 아래, 진화론과 다양한 근대담론과의 내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다. 먼저 이인직과 이해조의 신소설, 신채호의 영웅·전기소설 등 특정작가에 나타난 진화론적 인식소를 추출하고, 그것의 유입 경로 내지는 그

2) 이해조·이인직은 물론, 같은 신소설 작가 안국선·최찬식에서 신채호·최남선·한용운·현상윤·양건식과 이광수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은 이들의 인식의 틀을 지배한 주요한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윤희로, 「개화기 진화론과 문학사상」, 『동양학』 제1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노작(勞作)임에도 윤희로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유길준이 후쿠자와를 매개로 진화론을 수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대목을 문제 삼을 수가 있다. 후쿠자와의 진화론이 아니라 그의 문명론을 주체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온당한 해석일 터이다. 이것은 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 경로를 정치하게 파악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광수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사회진화론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이광수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진화론을 ‘힘의 논리’로서만 이해해 사회진화론과 동일시, 춘원의 진화론 사상에 내장된 문제점은 도출하지 못했고, 작품 해석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춘원의 진화론 사상은 일본의 가토와 독일의 헤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모두 강력한 국가주의자들이었다.

의미를 해독하는 연구 등을 들 수가 있다. 2000년대 들어서 1910년 이후의 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진화론적 사유를 탐독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⁴⁾ 여기서도 특정 작가에 편중되었거나 당대 근대담론들과의 내적 연관성에 주목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분석을 통한 작가들의 인식론의 범주화가 절실히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진화론을 한 작가의 사상의 기원으로 보고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가는 이광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뭇 무계를 지닌 연구서로는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의 『무정을 읽는다』(소명출판, 2008), 이재선의 『이광수 문학의 지적편력』(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과 와다 토모미(和田とも美)의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예옥, 2014)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저술들을 통해 진화론과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의 심도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 진화론에 대한 섬세한 이해는 이재선의 저서에서 도드라진다. 그는 이광수 사상의 계보를 독일의 헤켈(Ernst Haeckel, 1834-1919)과 영국의 스펜서가 중심을 이루는 ‘기계론적 진화론’에 위치시키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광수의 기계론적 진화론 수용 및 체계화가 그의 문학세계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과 관련한 이광수 인식론의 전체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와다 토모미(和田とも美)의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또한 진화이론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광수의 사상과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저자가 다윈의 진화이론과 헤켈의 진화이론이 질적으로 다

4) 하타나 세츠코(波田野節子),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 서강대출판부, 2010; 최주환, 「민족개조론과 相愛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제30집, 2011; 황종연, 「신 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제36집, 상허학회, 2012; 장영우, 「이광수의 진화론적 사상과 일제말 문학의 특질」, 『한국문예창작』 제11집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와다 토모미(和田とも美)의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이만영,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 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등을 들 수가 있다.

른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헤켈의 진화론이 목적적이고 기계적이라 할 때, 와다 토모미 또한 이광수를 헤켈의 영향을 받은 기계적 진화론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재선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가 왜 이러한 기계적 진화론에 빠져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터인데, 이 책에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그 해답은 『무정』을 쓰기 전 이광수가 발표한 1910년대 단편소설에서 찾아야 한다. 그 시절 이광수의 단편에서는 ‘강력주의’와 ‘허무주의’가 교차하고 중국에는 현실을 외면한 ‘교양주의’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입신출세에 대한 좌절과 함께 자신의 계몽기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일본 유학 전 그에게 일본은 ‘다름’ 즉 ‘뿔의 세계’였지만 일본 유학 후, 특히 제2차 유학을 통해 그것은 점차 ‘동의 세계’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같은 세계’였던 자신의 조선마저도 점차 ‘다름의 세계’로 오히려 타자화 시켜버리는 존재의 역전현상을 발생시킨다는 데에 있다. 중국에는 타자화된, 즉 ‘다름의 세계’로 굳어진 조선을 일본이란 ‘같은 세계’로 동일시하려는 파국을 초래하는 비극을 창출한다. 이광수의 인류에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파국을 막기 위한, 위장하기 위한 ‘동의 세계로의 피신’이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한다. 그에게는 ‘같은’과 ‘다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힘의 균형추에 따라 유동하는 ‘동이’를 잃어버린 고야⁵⁾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확실함을 지닌 목적지향적이고 결정론적인 진화론의 세계이다. 교양주의를 1930년대 담론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은 1910년대 이광수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논의에 해당하는 이만영의 논문⁵⁾은 이재선·와다 토모미와 달리, 이광수 진화론 수용경로의 핵심으로 헤켈보다도 일본의 우키타 가즈

5) 이만영,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 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타미(浮田和民, 1859-1946)를 중요인물로 거론하고 있다. 진화론 수용의 회로는 다양한데, 한 작가에게 결정적이고 강렬하게 사상적 충격을 준 인물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트의 맥락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만영은 이광수가 우키타가 한일병합에 반대한 인물이었다는 점에 매료되었을 가능성 혹은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키타의 사상을 접하고 이에 매료되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우키타 가즈타미의 ‘인위적 진화론’ 또한 독일 헤켈의 기계적 진화론에서 유래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의 유형화는 도식적일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를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으로부터 밀려온 진화론의 다양한 파고의 뿌리와 그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의 밑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의 『무정을 읽는다』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적용할 수가 있다. 특히 『무정』을 분석하면서 주인공 이형식 ‘의식의 흐

6) 문제는 가즈타미의 진화론 사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1905년, 그는 “작금의 제국주의는 민족팽창과 생존경쟁의 자연적 결과이며 세계에는 반(半) 정도만 개화된 야만인과 독립할 가치가 없는 국가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국주의와 결합된 일본의 민족주의를 정당화했던 인물로,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우키타가 제국주의의 ‘윤리성’을 강조한 적은 있다. 우키타는 『윤리적 제국주의』(1909)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저서에 이 말을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책을 발간하기 전 『제국주의와 교육』(1901)에서 이렇게 썼다. “권리는 천부가 아니다. 자연이 아니다. 적어도 스스로 이것을 유지하고 스스로 이것을 선용(善用)할 수 없는 자는 권리를 향유할 정당한 요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이다.(…)국내에서 부도덕하거나 무능력한 인간에게는 어떤 권리도 향유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단지 사회의 인내와 동정에 의해, 혹은 타인의 보호에 의해 생존하듯이, 국외에서 국가가 반개(半開), 야만 민족을 정복하거나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다른 국가를 병탄(併呑)하는 것도 결코 불의 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키타는 후에 다른 글에서 “제국주의는 기실 주의가 아니라 사실”이라면서 “이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온당하고 착실한 윤리적 정의를 내리”고 그 실행이 윤리에 일치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일본의 ‘윤리’와 ‘도덕’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렸던 것이다. 가즈타미는 ‘조선’은 문화적 전통이 있어 병합하는 것보다 자치권을 준 준식민지가 일본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보았던 터다. 주석을 좀 길게 쓴 것은 한 인물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때는 영향 관계에 있는 전후 텍스트의 맥락을 깊이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름'을 베르그손의 『시간과 자유의지』(1889) 가운데 '자유행위' 장과 연결시키고 있다. 타당한 독해인 것인가? 기차 안에서의 환상 체험을 위해 것처럼 주인공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시간대를 벗어나도록 허락했던 이광수는 삼량진 이후 다시 문명, 미래, 진화 중심의 균질적인 시간대로 그를 복귀시켜 놓았다. 이것은 베르그손이 내세운 '창조적 진화'와는 한참 거리를 둔, 기계적 진화론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베르그손의 진화철학은 염상섭에 이르러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러한 아쉬움은 황중연이 엮은 『문학과 과학』 1·2·3(소명출판, 2013·2014·2015)에 와서 비로소 어느 정도 해소되기에 이른다. 이 책은 다양한 시기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과학적 세계관과 당대 담론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성과물로 과학적 세계관으로 진화론을 포섭하고 있다. 이 저술이 지향하는 바, 신소설에서 1930년대를 넘어 해방 전후까지를 아우른 통시적 관점을 유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진화론에 대한 집중적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략하게 살핀 것처럼 진화론과 근대문학 연구는 진화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화론과 근대담론의 내재적 연관성, 특정작가·특정시기를 넘어선 근대 핵심 시기를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등에서 아직도 깊이 있는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에서 이것을 유형화한 가운데 근대문학을 분석한 사례는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근대 진화론의 네 가지 유형

진화론의 유형은 여러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생물계의 세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진화 그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진화론은 출발부터 다양한 이론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형국을 보였다. 다윈 이전

라마르크(Chevalier de Lamarck, 1774-1829)는 공동후손·종의 증가·자연 선택을 거부했으나 이후 신라마르크학파는 공동후손·종의 증가·단계주의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자연선택만 거부했다. 다윈의 이론을 독일 국가주의에 적용시킨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자연선택에 대해서만 부분적 동의를 나타냈는가 하면, 다윈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5)는 종의 증가와 단계주의를 거부했다. 이렇듯 생물학 차원에서부터 진화론은 다양한 분파들을 생산했다. 이러한 반응들에는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배경들이 숨어 있었다.

위너(Philip Wiener, 1905-1992)가 주 편자인 『사상사 사전(Dictionary of the History Ideas)』(Scribner, 1978) 제2권 「진화론」 해설편에서 구지(Thomas Goudge, 1910-1999)는 진화론을 기계적 진화론·생기론적 진화론·창발적 진화론·실용적 진화론 등으로 유형화했다. 생물학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다분히 형이상학적 관점이 녹아 있는 틀 개념이다. 실용적 진화론의 경우에는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철학을, 창발적 진화론에서는 베르그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일 터이다. 사실 다윈의 진화이론은 생물학의 차원을 넘어 기존의 형이상학이 제시한 실재론을 여지없이 깨뜨린 철학이기도 하다. 다윈의 진화이론은 그래서 수용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철학적 해석을 낳기도 했던 것이다.⁷⁾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형분석 또한 철학적 관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기계적 진화론·윤리적 진화론·상호부조 진화론·창조적 진화론 등이

7) 다윈주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다윈주의를 받아들이는 관심과 경험에 크게 결정된다. 다윈주의는 목적론자, 라마르크학파, 멘델학파 또는 진화의 종합설을 받아들이는 생물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다윈주의’라는 단어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 등지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인다.(...) 다윈의 이론은 초창기부터 수많은 이데올로기, 즉 물리주의·자연목적론·목적원인론 등의 반대를 받아왔는데, 이데올로기의 강도는 나라마다 각기 달랐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 또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윈주의’라는 말은 자신의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에른스트 마이어, 신현철 역, 『진화론 논쟁』, 사이언스북스, 1998, 122-123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 구지가 설명하고 있는 생기·창발·실용적 진화론과 이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윤리·상호부조·창조적 진화론 등 전체가 기계적 진화론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윈이 철저히 거부했어도 기계적 진화론은 진화론 논쟁의 역사에서 가장 긴 생명을 유지해 왔다. 기계적 진화론은 목적론·본질론과 맥을 같이 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온 본질주의는 종 혹은 형상은 이미 주어져 고정된 것으로 종 자체는 불변하다는 것이다. 현상세계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불변하는 종을 지향하는 운동, 즉 변화는 다분히 형상인(形相因)과 목적인(目的因)을 향한 '나아감'이란 이야기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출발한 기계적 진화론은 또한 결정론일 수밖에 없다.

윤리적 진화론은 인간에 잠재해 있는 도덕적 감성을 인정하는, 나아가 상애(相愛)의 정신을 강조하는 상호부조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의 도덕적 감성은 진화론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진화와 관련해 인간의 도덕 감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다윈이었다. 다윈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도덕적 감성이 진화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특히 진화론을 수용하는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진화와 윤리'의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을 터이다. 동아시아 전통사상인 공맹(孔孟)에서 윤리와 도덕은 그 중심축이었기 때문이다. 진화론 수용과 관련해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융해시켰는지, 배제했는지 동아시아 진화론의 지형도를 결정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서양에서도 인간의 도덕적 감성을 배제해버린 스펜서(Herbert Spence, 1820-1903)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영국 혁슬리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4)가 탄생했던 것이다.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상호부조 진화론은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마당(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그가 동아시아에 던져준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는 대표적 크로포트킨주의자로 그 또한 한국의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인물이었다. 19세기 유럽은 적자생존·약육강식 등의 논리와 구호가 휩쓸었다. 이러한 현실에 강력한 제어의 논리로 등장한 것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었다. 진화의 세계에는 적자생존·약육강식만이 아닌 상호부조의 논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상호부조론은 향후 아나키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것을 두고 다윈의 진화론과 배치되는 이론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크로포트킨은 다윈의 진화론을 긍정했다. 다윈의 이론을 잘못 적용한 스펜서류의 논리를 공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창조적 진화론은 베르그손이 주창한 것으로, ‘창조적’이란 진화의 과정에 ‘새로운 형식의 종의 탄생’이 기계론적이거나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화 주체의 비전과 자유에 의한 ‘고안’ 혹은 ‘창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르그손에 이어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 1887-1961), 샤르탱(Teilhard de Chardin, 1881-1955) 등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창조적 진화론의 출발점은 ‘생명’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이다. 이들은 연속적 시간에서 태어나고 변하고 소멸하는 진화론에서 ‘시간의 역동성’을 발견한 것이다. 기계론적·목적론적 결정론을 반박하면서 존재의 내재적 자율성 통한 ‘질적 비약’을 사유한 창조적 진화론은 베르그손이 1907년에 출간한 『창조적 진화(Évolution créatrice)』에 그 뿌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강조해 둘 것은 크로포트킨과 마찬가지로 베르그손 또한 다윈의 진화이론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진화론을 물질적 세계를 넘어선 창조적 세계로 안내했다는 점이다.

4. 유형별 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과 그 성격

한 작가의 진화론적 상상력과 인식론을 분석할 때, 작가가 접한 텍스트는 주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작가의 진화론적 인식론의 유형을 파악할 수가 없다. 각 텍스트 사이의 콘텍스트를 읽어내고 작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텍스트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일 터이다. 여기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철학적 함의를 포함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함께 읽어낼 때 비로소 한 작가의 진화론적 인식의 틀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광수가 진화론과 관련해 접한 텍스트는 라마르크·멜더스에서 다윈·헥켈·헉슬리·스펜서·베르그손·크로포트킨·량치차오·가토 히로유키·우키타 가즈타미 등 실로 그 이름을 다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다양했다. 진화론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른 이 모든 텍스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은 오히려 진화론과 관련해 이광수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한 작가가 진화론과 관련해 거론한 모든 텍스트를 그 작가의 진화론적 인식소로 보는 관점은 경계해 마땅하다. 여기서 발신자로서의 중심 텍스트와 국가·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화론의 유형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는 한 작가가 그렸던 당대의 술한 담론의 관계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1) 기계적 진화론

앞서 과학혁명을 언급하면서 이 패러다임 대전환의 주역들은 기계론이라는 새로운 자연철학을 낳았다고 했다. 기계론은 물리적 실재가 질량과 운동이라는 기계적인 원인들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철저한 기계론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삶 전반·감각·감정·사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조직·까지도 이 질량과 운동의 법칙 하에 있다고 주

장한다. 17세기 기계론적 철학은 생명현상·정신작용과 인간의 행동 원리를 미리 설계된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치 천체의 운동처럼 고정되고 패턴화된 형상으로 여겼다. 물리학과 수학이 과학을 지배하던 17세기 이후 베이컨과 데카르트로부터 로크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증명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기계론에 그들의 사고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것은 본질주의적이고 엄격한 결정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렇듯 일반적인 법칙(물리·수학)에 근거를 둔 기계론의 역사는 근대 이후, 곧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 철학은 기계론의 성격이 강했다. 19세기 독일 철학의 주된 사상적 근거를 마련한 칸트 역시 기계론자였다. 이러한 칸트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초 독일 생물학계는 이미 기계론적 사고에 익숙해 있었다. 다윈 이후에 발표된 정향진화설(orthogenesis·定向進化說), 내부적인 방향성을 지닌 힘으로 내적으로 완벽하려 한다는 원리 역시 목적론적 기계론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인데, 독일에서만 많은 지지가 나온 나라도 없었다.⁸⁾ 이 지점에서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기계론을 특성으로 하는 그의 진화이론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진화이론은 국가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의 저서와 강연록은 훗날 인종차별과 나치에 의해 이용당하기도 한 철저한 생물학적 환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헤켈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면이 필연적으로 단일한 통일성을 지니게 된다는 일원론을 주장하면서 도덕마저도 생물학의 응용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진화론 수용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독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후발국이었던 독일의 국가체제가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8) 에른스트 마이어, 신현철 역, 『진화론 논쟁』, 사이언스북스, 77-78면.

이러한 사고는 일본의 과워엘리트에게서부터 나타났다. 일본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영국 유학과 미국 시찰을 다녀왔지만 독일 헌법에 관심을 갖고 독일시찰을 감행했다. 거기서 만난 사회학자이자 법학자인 슈타인(Lorenz von Stein, 1815-1890)의 영향은 실로 컸다. 그 또한 국가유기체설을 옹호하는 국가주의자였다. 그의 이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 개인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식이었다. 그 도구로 그는 교육을 강조했다. 이토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그는 자신의 구상의 일단을 ‘제국대학’ 설립(1886년 ‘제국대학령’의 공포)을 추진하면서 드러냈다.⁹⁾ 도쿄제국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 교육정책의 상징적 존재였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는 독일의 국가주의 사상에 동조, 헤켈의 진화론을 일본에 적극 소개했다. 당시 메이지 학계의 진화론은 스펜서와 헉슬리로 대표되는 철학적·종교적 경향을 띤 영국 진화론과 헤켈로 대표되는 기계주의적·유물주의적 성격의 독일계 진화론으로 나뉘어 있었고, 전체 틀에서 가토의 진화론은 그중 후자의 경향을 대표할 뿐이었다.¹⁰⁾ 카토가 메이지 시대 일본 진화론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화론 사상이 중요한 것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가 쓴 『明治哲學の回顧』(東京, 岩波書店, 1875)을 보면 당시 일본 진화론에 대한 생생한 회고담을 들을 수가 있다. 가토 히로유키에 대한 부분만 몇 구절을 선택, 인용해 보면 가토와 헤켈의 사상적 친연성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다.

9) 줄고,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입신출세주의·교양주의, 그 관계의 의미망과 1910년대 한국 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과 예술』 제30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262면.

10) 백지운, 「량치차오(梁啓超)의 사회진화론—계몽주의의 종교적 재구성」, 『중국어문학논집』 제 55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327-328면.

가토 박사의 주장은 대체로 진화주의·공리주의·이기주의·유물주의·기계주의 그러한 입장이었다.(25면) 가토 박사는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일체의 종교는 앞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 점은 헤켈과 동일하다. 헤켈은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 해서 신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신을 유령이라고 해서 성모마리아를 유척수 포유동물이라고 칭했다.(28면) 이기심은 제국주의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국제도덕 따위는 필경 없게 된다. 가토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타심이라는 것은 있기는 하나 그것 또한 이기심의 변형이라 생각해서 이기심을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해 모든 윤리 도덕을 설명하려 했다. 또 가토 박사의 입장은 무논유물주의(無論唯物主義)로 물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29면)

이노우에 테쓰지로의 회고담에서도 드러나지만 가토와 헤켈은 진화론 해석에서만은 같은 지점에 서 있었다. 가토는 자유주의적 경향의 영국 사상보다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일식 사상을 선호했던 것이다. 가토의 사상은 강력주의·생물학적 환원주의·일원론적 사유체계 등이 망라된 진화론에 기초한 일본의 국가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일본에 유학하던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은 물론, 국내의 지식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다가왔다. 이렇듯 기계적 진화론의 한국 수용은 독일→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대표적 기계적 진화론 수용자로는 대표적으로 이인직과 이광수를 들 수가 있다.

2) 윤리적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적자생존·우승열패 등의 강권주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뜻밖에도 생물학 차원에서 인간 윤리의 문제를 처음 제기하는 이는 다름 아닌 다윈이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an)』

(1871)에서 “인간과 하등동물의 모든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도덕적 감정과 양심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¹¹⁾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 본능을 지닌 어떤 동물이라도 그들의 지적 능력이 인간과 동일할 정도로 발달하자마자 필연적으로 도덕적 감정과 양심을 획득할 것”¹²⁾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즉 다윈은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인간이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동물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했던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 즉 인간이 ‘사회적 존재’란 사실이었다.

진화와 윤리의 문제가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그래서 작가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의 인식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입각점에서 진화론 수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화론의 발생지인 영국, 그중에서도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토머스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5)의 진화와 윤리에 대한 논지에 주목해 동아시아의 수용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독일의 사상계와 달리 영국은 자유주의적 기풍이 있었다. 기계적 진화론을 설파한 독일의 헤켈과 진화에서 윤리를 강조한 영국의 헉슬리는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에서 서로 대척되는 두 개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헉슬리가 저술한 『진화와 윤리』(1894)란 책을 당시 영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의 옌푸(嚴復, 1854-1921)가 1899년 『천연론(天演論)』이란 이름으로 번역·출간하면서 중국에 처음으로 진화론을 소개했다.¹³⁾ 일본은 기계적

11) 찰스 다윈 지음, 김관선 옮김, 『인간의 유래 1』, 한길사, 2006, 167면.

12) 위의 책, 168-169면.

13) 토마스 헉슬리가 말하는 진화의 두 원리인 ‘the struggle for existence’와 ‘natural selection’을 ‘物競과 天擇’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낸다. 그런데 ‘생물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정의된 ‘물경’이 메이지 일본의 번역어 ‘생존경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자연선택’으로 풀이되는 ‘천택’의 경우에는 간단치 않은 의미 맥락이 담겨져 있다. 한문맥에서 ‘천(天)’은 그 배후에 ‘태극(太極)’이나 ‘리(理)’와 같은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담지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

이면서 국가주의적인 독일의 진화론을, 중국은 자유주의적인 영국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형국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도 일본이 아닌 중국이란 또 다른 진화론 수용의 통로가 마련됐던 셈이다. 『진화와 윤리』에서 혁슬리는 진화 과정에서 윤리의 문제를 역설했다. 즉 인간의 윤리적 규범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최적자(the fittest)가 반드시 윤리적으로 가장 좋은 자(the best)이지 않다고까지 주장했다. 이 책은 하버트 스펜서가 주창한 낙관적 사회진화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혁슬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우주적 과정(cosmic process)과 인간의 윤리적 과정(ethical process)을 엄격하게 분리했다. 더 나아가 혁슬리는 진화와 윤리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진화의 과정은 인간의 윤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윤리는 진화의 과정에 대항해서 얻은 인간의 문화가 승리한 표식이라는 것이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서 규범 윤리적 함의를 도출해낸 스펜서의 도덕관을 문제 삼은 측면이 강했다. 스펜서에게 도덕적 ‘좋은’은 ‘더 진화된 것’을, ‘나쁜’은 ‘덜 진화된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진화는 근본적으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연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 즉 ‘더 진화된’ 행위란 ‘적자생존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을 연장하는 행위,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행위, 그리고 자손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했다.¹⁴⁾ 스펜서는 진화의 ‘사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번역어가 바로 ‘천연(天演)’이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evolution’의 의미를 ‘천연’으로 해석한 엔푸의 번역은 동일한 단어를 어의(語義)에 근거해 ‘進化’라는 회귀차형어로 번역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문맥의 맥락을 원용한 창조적 번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상철,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문명-서양’ 인식-번역어 ‘天演’과 ‘進化’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430면.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가 번역한 ‘進化’와 중국 엔푸가 번역한 ‘天然’은 이렇듯 철학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14) 제임스 레이첼즈 지음, 김성한 옮김,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 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 나남, 2009, 130면.

실'로부터 '윤리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스펜서의 왜곡된 '윤리의 생물학화(biologization of ethics)'가 정당성을 획득해 가는 상황에서 혁슬리는 이것을 제어할 방법론으로 '윤리의 비생물학화'를 주장했다. 탁월한 다윈 연구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에이드리안 데스몬드(Adrian Desmond, 1947-)의 말대로 "다윈주의의 흐름을 타고 멀리까지 왔던 혁슬리는 이번에는 그 흐름을 거슬러 윤리의 방주로 나아갔다."¹⁵⁾ 사실 다윈도 『인간의 유래』에서 양심과 도덕적 감정이 진화의 산물임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진화에서 윤리적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진화론의 윤리적 함축을 밝히는 적극적 작업보다는 진화론이 함축하지 않는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소극적인 작업을 선호했다. 요컨대 윤리의 생물학화와 관련하여 다윈은 기술윤리학의 측면에서는 윤리의 생물학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지만, 규범윤리학의 측면에서는 윤리의 생물학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¹⁶⁾

관심은 중국의 옌푸가 혁슬리의 책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느냐의 여부다. 그가 「번역 범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역(筆譯)보다는 상당 부분 의역(達愷)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지점의 이해는 단순할 수가 없다. 특히 옌푸가 번역한 『천연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사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처음 수용한 진화론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량치차오는 옌푸가 『천연론』을 출간하기 2년 전에 번역 원고를 구해 읽었을 정도였다. 옌푸는 『천연론』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중국에 던졌던 것일까? 자유방임적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서 있던 스펜서를 추종한 옌푸가 왜 스펜서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혁슬리의 텍스트를 번역의 지

15) A. Desmond, Huxley : From Devil's Disciple to Evolution's High Priest, New York : Perseus, 1994, 599면. 류지한, 「윤리의 생물학화 :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연구』 제103호, 한국윤리학회, 2015, 4면에서 재인용.

16) 류지한, 위의 논문, 3면.

본으로 삼은 것인지, 옌푸가 『천연론』에서 스펜서와 헉슬리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1916-1999)는 자신의 저서 『부와 권력을 찾아서(In Search of Wealth and Power)』(최효선 역, 한길사, 2006)에서 옌푸를 철저한 스펜서주의자로 보고 있는 대표적 학자다. 그는 『천연론』을 설명하면서 옌푸가 서양사상의 핵심으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비롯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보았다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옌푸가 스펜서와 헉슬리의 학설을 절충하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⁷⁾ 특히 리쩌허우(李澤厚, 1930-)는 스펜서를 인용하여 헉슬리를 비판한 것만을 지적하여 옌푸가 완전히 스펜서의 입장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보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옌푸가 헉슬리와 스펜서를 절충한 것은 모순 같지만, 실제로는 부합하는 합리적인 ‘창조’였다고 주장했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천연론』에 담긴 진화론은 헉슬리의 것도, 스펜서의 것도 아닌 옌푸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창안물이라는 것이다.

필자 또한 옌푸의 『천연론』이 슈워츠가 주장하고 있듯이 스펜서 사상을 일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리쩌허우 등이 주장하고 있는 스펜서와 헉슬리를 결합한 ‘창조’적 관점에 타당성을 보았다. 근대 초기 한국의 진화론 수용과정에서 일본발 진화론과 중국발 진화

17)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저를 들 수가 있다. 양일모, 『옌푸 :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태학사, 2008 ; 李澤厚 著·임춘성 역,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양일모는 옌푸가 중국의 자강과 종족의 보존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헉슬리가 강조한 윤리과정의 의미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작위성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경란 또한 옌푸가 기본적으로 스펜서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위를 강조하기 위해 헉슬리의 시각(勝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리쩌허우는 옌푸가 자연진화는 보편법칙이고 인류에도 적용된다는 스펜서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자연에 맡겨 다스린다’는 약육강식 사상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을 『天演論』의 독창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18) 李澤厚 著·임춘성 역,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439-440면.

론이 갈리지는 것은 이 지점이었다. 스펜서의 관점을 취하느냐, 아니면 혁슬리 관점이나 하는 차이는 중국의 사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을 터이다. 다음의 관심사는 옌푸의 『천연론』을 통해 진화론을 처음 접한 량치차오 일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량치차오의 진화론은 대체적으로 국가주의에 기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¹⁹⁾

백지운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것은, 그의 진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영국의 사상가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 1858-1916)이며, 량치차오는 그를 메이지 일본 지식계를 매개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1848-1919)의 번역을 통해서 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량치차오의 진화론이 전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통설적 인식은 반성적인 점검을 요하게 된다.²⁰⁾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조경란 또한 량치차오 진화론 수용에서 키드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해석은 다르다. ‘강권적 요소의 강화’를 위해 키드의 진화론을 량치차오가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량치차오는 물론, 당대 조선 지식들인의 진화론의 맥을 찾는 것에서도 중요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어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혁슬리로부터 옌푸, 그리고 량치차오로 이어지는, 중국의 진화론의 숙명과도 같은 숙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지성에 대한 절성(節性)에 착목한 키드와 진화에서 윤리를 강

19) 대표적으로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엄복, 양계초, 장병린, 노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해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화과지성사, 2002 등의 연구가 량치차오 진화론 수용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20) 백지운, 앞의 논문, 324면.

조한 혁슬리의 주장을 량치차오가 일부 차용, 당대 중국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것을 그의 시행착오로 보고 있는 점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²¹⁾ 이것은 량치차오를 강권론자로만 해석하는 데서 오는 단견은 아닐까, 짚어볼 문제다. 량치차오의 다음의 글은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키드는 인류의 진보에 반드시 節性을 제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성이란 무엇인가? 종교로 天然性を 制裁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群을 이루고자 하고 진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란 천연성의 반대이자 보완이다. 항상 종교가 있고 그로써 인류 천연의 惡質과 서로 대항한 연후에 비로소 人群의 결합을 촉진하고 그것을 진보시킬 수 있다.²²⁾

량치차오는 이 글에서 ‘節性’은 ‘天然性を 制裁’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키드는 그 절성을 제일로 삼고 있다 했다. 이 말은 혁슬리가 강조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우주적 과정과 인간의 윤리적 과정과 일치한다. 량치차오는 혁슬리와 키드의 진화사상을 동시에 취했던 것이다.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흐름은 애국계몽시대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고, 그 흐름은 이후 상호부조 진화론으로 승화되어 이어졌다.

3) 상호부조 진화론

크로포트킨의 대표 저작 『상호부조론(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21) 조경란은 키드의 입장을 수용한 량치차오의 태도를 스펜서가 주장한 적자생존의 의미를 혁슬리가 도덕적 입장에서 ‘우연적’이라고 비판한 것과 우연히도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해석 방식을 그대로 민약론에 적용시키면 그것은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란, 앞의 논문, 83면 참조.

22) 梁啓超, 「進化論革命者頌德之學說」 吳松 外 点校, 『飲水室文集点校』 제1집, 424면. 백지운, 앞의 논문, 341에서 재인용.

(1902)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동물의 종 내부 개체들의 상호협동과 종과 종 사이의 상호부조를 비롯해 식물계의 단순한 세포 활동까지도 상호협동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13년이란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밝혀냈다.²³⁾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한국 근대문학연구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던져준 과장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부조론』은 사상서가 아니라 학술서로 크로포트킨에게 ‘상호부조’라는 용어는 이념이 아니라 학술적인 용어였다. 크로포트킨은 19세기 말 극단적으로 노골화된 자본가들의 전횡과 그것의 외적 확산이었던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크로포트킨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받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에서 『상호부조론』을 저술했던 것이다.²⁴⁾

그는 ‘경쟁과 적자생존’에 의해서 종이 진보한다는 자연법칙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윈 진화론의 핵심도 아니라고 생각했다.²⁵⁾ 이것은 중요한 지점으로 크로포트킨이 다윈을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다. 사실 다윈으로부터 제국주의와 자본 전횡의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19세기 자본가들의 행태는 다윈의 연구결과 중에서 약육강식의

23) 크로포트킨은 19세기 말 다윈의 진화론이 이른바 생존경쟁·우승열패 등의 강권주의 선언 속에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란 것을 인식하고 이를 지적하기 위해 일련의 저술작업을 이어갔다. 1890년 「정의와 도덕(Justice and Morality)」(강연·글)을 시작으로 1890년부터 189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국의 저명한 잡지 『19세기(The Nineteenth Century)』에 스펜서류의 사회진화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연재했다. 동물의 상호부조·원시인의 상호부조·고대인의 상호부조·중세도시의 상호부조·근대사회의 상호부조 등의 논제를 포괄했다. 1902년 이 논문들을 보완, 『상호부조론‘진화의 한 요소’』란 책을 출간한 것이다.

24) 크로포트킨, 김영범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르네상스, 2005, 29면.

25) 위의 책, 12-13면.

논리만을 자기 방식대로 강조한 일면적 해석에 가까운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찰스 다윈은 1871년에 출간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진화론을 근거로 삼아 설명했다. 다윈은 인간의 도덕성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획득한 보편적 기질이며, 곧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협동하는 인간의 진화된 기질의 유무가 문명과 미개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²⁶⁾

크로포트킨은 고등 생물로 진화할수록 협동을 통해서 다른 생물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자신의 판단 근거를 다윈으로부터 찾았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상호부조에 의한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받게 된 것이다. ‘진화의 한 요인으로서 상호부조(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이론은 이렇게 탄생했고, 이 책은 지금도 아나키즘 사상에 생물학적 기초를 부여한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상호부조론 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대체적으로 192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세계적으로 발흥했던 ‘개조’의 물결을 타고 주목받던 크로포트킨이 상륙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0년대 초부터 크로포트킨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1902년 4월 초부터 10월에 걸쳐 사회주의자 가타야마 센(片山潛, 1859-1933)이 주재하는 잡지 『勞働世界』 ‘인물’란에 「러시아의 황족 허무당의 수령 크로포트킨」이 14회 연재되었다. 크로포트킨에 대한 관심은 러일전쟁 이후 증대했다. 1906년에 간행된 구쓰미 겐손(久津見巖村, 1860-1925)의 『無政府主義』는 크로포트킨에 대해 간단한 전기적 소개를 한 뒤, 크로포트킨의 사상은 매우 과학적이고 귀납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가 크로포트킨 사상의 기본으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상호부조(相互扶助)란 대의(大義)였다. 이러한 흐름 이전부터 크로포트킨에 대한 언급

26) 찰스 다윈, 김관선 옮김, 『인간의 유래 1』, 한길사, 2006, 211-233면 참조

은 있었다. 후쿠이 준조(福井準造, 1871-1937)가 이미 1899년 『近世社會主義』에서 프루통-바쿠닌-크로포트킨의 순으로 무정부주의를 소개하는데, 특히 크로포트킨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 대해서는 구쓰미에 앞서 1904년 이미 사회주의자 니시카와 고타로(西川光太郎)에 의해 『平民新聞』에 그 대략이 소개된 바 있다.²⁷⁾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크로포트킨이 1920년대 개조의 물결을 타고 한국에 본격 접촉되었다지만 그 이전 일본을 통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진화론을 접한 지식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크로포트킨 사상을 조선에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다이쇼 시대 대표적 아나키스트였던 오스기 사카에는 자신이 창간한 『近代思想』 제2호(1912.11)에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어 『동물계의 상호부조』(1915.9)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이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1910-20년대 한국의 상호부조 진화론 수용에서 오스기 사카에는 절대적이었다. 크로포트킨 저작의 오스기 일역본이 한국어 번역의 저본이 되거나 오스기 글 자체가 번역을 통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크로포트킨의 수용에 있어서는 특히 「청년에게 고함」과 『상호부조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²⁸⁾ 잡지 『서울』(1920년 6월)에는 한 페이지 정도로 「크로포트

27) 西川生, 「動物界に於ける相互補助(上,下)」, 『平民新聞』 32·33(1904.6); 西川生, 「未開人の間に於ける相互扶助」, 『平民新聞』 46(1904.9); 西川生, 「中世及び近世の社會に於ける相互扶助」, 『平民新聞』 49(1904.10).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촉 -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역사연구회, 2012, 136면.

28) 1927년 18세의 열혈 문학청년 박태원은 당시 조선의 어떤 작품도 자신에게는 실망과 불만 따라서 슬픔을 느끼게 할 뿐이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眞과 熱'의 문학은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하노라'와 같은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그 글을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譯의 팜 플랫폼으로 읽었으며, 동경에 있는 절친한 벗이 보내 주어 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태원, 「시문잡감」, 『조선문단』, 1927. 1.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6, 176면.

킨의 略傳」이 실렸고, 그 이전 1920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에는 김명진의 번역으로 「靑年에게 告함(크로포트킨)」이 게재되었다. 오스기의 글을 중역한 것이다. 「靑年에게 告함」은 그 뒤로도 『共濟』 7호 1장과 『共濟』 8호 2-4장에 번역 게재되었다. 크로포트킨과 오스기 사카에, 이들의 사상적 네트워크와 각기 지니고 있었던 고유의 철학이 중요한 것은 191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까지 연결되는 상호부조론·개인주의·아나키즘·사회주의까지 실로 다양한 근대 담론들과 연결되는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부조 진화론 수용의 대표적 작가로는 불교도였던 양건식(梁建植, 1889-1944)을 들 수가 있다. 불교철학과 상호부조 사상이 서로 통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4) 창조적 진화론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손이 1907년 간행한 『창조적 진화(Évolution créatrice)』에서 본격 제기하기 전 서양의 과학과 철학의 역사 속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었다. 이미 데카르트가 역학적 입장에서 생명을 기계의 일부로 고정시켰을 뿐이었다. 베르그손은 『창조적 진화』 서문에서 “생명에 대한 이론은 곧 생명에 대한 인식”임을 역설했다. 자신의 형이상학이 생명 개념 토대 위에서 구축됐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생명 인식을 위한 방법론으로 ‘실증적 자세’를 취했다. 그의 이론들은 ‘사실들의 선상(sur les lignes des faits)’에서 구체화 됐다. 이를 위해 먼저 베르그손은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했다. 베르그손의 이러한 ‘실증적 형이상학’의 면모는 대표적으로 『창조적 진화』 제1장 「생명 진화에 관하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생명은 생겨난 이래로 유일하고 동일한 약동의 연속이며 그 약동이 진화의 분기하는 노선들로 나누어진 것이다. 일련의 창조가 연속적으로 부가되어 무언가가 성장하고 발달해 왔다.”²⁹⁾ 이 장에서 그는 다윈주의·신

다윈주의·라마르크주의·신라마르크주의·정향진화설·돌연변이설 등 당대의 진화이론이 제시하는 경험적 사실³⁰⁾들을 상세하게 고찰하면서 이로부터 ‘진화는 생명적 약동(élan vital)의 지속’이라는, 이른바 ‘엘랑 비탈(élan vital)’ 가설을 제시했다. 여기서 베르그손의 ‘지속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미 『창조적 진화』 이전의 저서들을 통해 지속이론을 정립했다. 먼저 그는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1889)에서 ‘질적 변화의 잇따름’(succession du changement qualitatif)의 의미를 제시했다.

이 책에서 베르그손은 스스로 정립하여 세상에 공표한 ‘지속 개념’을 담았다. 이 개념은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적 직관이다. 그 후 『물질과 기억(Matière et mémoire)』(1896)에서 ‘과거가 현재로 연장됨’(prolongement du passé dans le présent), 즉 끊임없이 새로움이 창조된다는 의미로 발전된 그의 지속이론을 이어갔다. 그의 지속이론은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존재인 ‘의식’은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고, 전진하면서 부풀어가는 부단한 과정”³¹⁾인 지속이자, “한 사태는 표면적으로 자신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심층에서는 결코 반복될 수 없는”³²⁾ 창조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생명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연속성’, ‘과거의 현재로의 연장’, ‘새로움의 창조’라는 지속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일까? 생명체 또한 연장(étendue)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각각의 생명체는 자율적 활동성을 지닌 체계로서 본성상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체의 이러한 ‘개체화 되는 경향은 언

29)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98면.

30) 특히 베르그손은 유전학의 선구인 바이스만(August Weismann, 1834-1914)의 ‘생식질설’, 식물 생리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드 브리스(Hugo de Vries, 1848-1935)의 ‘돌연변이설’, 동물학자인 아이머(Theodor Eimer, 1843-1898)의 ‘정향진화설’ 등을 비판적으로 수용, 자신만의 진화이론을 형성했다. 그만큼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론’은 철저히 생물학에 바탕을 두었던 것이다.

31) 앙리 베르그손, 위의 책, 24면.

32) 앙리 베르그손, 위의 책, 27면.

제나 ‘번식의 경향’과 충돌한다. 개체성에 대한 온전한 정의란 ‘완전히 이루어진 실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생명적 속성들은 완전히 실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실현 중에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체가 자연에 의해 고립되고 닫힌 체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의 개체성은 전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종종 어떤 것이 개체이고 어떤 것이 개체가 아닌지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베르그손은 유기체 개체성의 특성을 이렇게 언급했던 것이다.

베르그손은 유기체 또한 의식적 존재처럼 지속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배의 발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노화 등 이러한 생명체의 전 일생은 끊임없는 형태 변화의 연속이다. 또한 생명체의 ‘노화’와 같이 ‘살아있는 어떤 것이 있는 도처에서 시간이 기입되는 장부가 존속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체는 변화의 연속, 과거의 현재로의 보존 등 의식과 지속의 속성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생명체의 개체성은 결코 분명하지 않으며 유기체의 일생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식 과정을 거쳐 조상에서 후손으로의 생명적인 연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전 진화 과정의 견지에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연속성 또한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고, 자신의 힘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종들로 나누어지고 개체들로 흩어져 온 생명의 흐름”³³⁾이 있을 것이라 주장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으로서의 생명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는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종들 사이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이설(transformisme)’이었다.³⁴⁾

이렇게 해서 베르그손은 개별 생명체의 속성을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 서서, 진화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흐름으로서의 생명개념을

33) 앙리 베르그손, 앞의 책, 58면.

34) 이아름, 「창조적 진화에 대한 두 개의 시선-베르그손과 종합진화론」, 『철학』 제113집, 한국철학회, 2012, 148면.

형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베르그손은 하나의 동일한 원초적 약동이 끊임 없이 진전하는 하나의 진화상을 갖게 되었다. ‘엘랑 비탈’은 ‘생명의 비약’, ‘생명의 근원적 비약(élan originel de la vie)’이라고도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생명의 연속적인 분출을 뜻하며, 모든 생명의 다양한 진화나 변화의 밑바닥에 존재하여, 그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는 근원적 힘을 말한다. 베르그손의 ‘엘랑 비탈’은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자연관은 자연은 물질의 무기력한 덩어리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자연의 물질계 내부에도 생명의 흐름이 관통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모아진다.³⁵⁾ 베르그손에게 생명은 개체적인 것이며, 과거를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취득, 질적 변화를 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창조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체계가 되는 것이다.

다이쇼시대(1912-1926) 일본 지식계에서 베르그손은 ‘붐(boom)’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³⁶⁾ 일본에서 『창조적 진화』는 1913년 번역되어 판을 거듭, 1914년에는 4쇄까지 찍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56년 사이에 이르는 유럽문예사조를 조감해 일본에서 문학도들의 필독서가 되었던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 1880-1923)의 『근대문학10강』(1912)에서도 베르그손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았다. 구리야가와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베르그손을 지목하면서 『창조적 진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로 있는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는 다이쇼기 일본 근대문학사를 생명주의 관점에서 기술하면서 일본의 생명주의는 다윈의 생물진화론 이후

35) 김형효, 『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1991, 17면.

36) 베르그손 뿐 아니라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오이켄에 대해서도 열광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에 등장한 ‘신이상주의(neo-idealism)’의 영향이 컸다.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은 실증주의·유물론 등의 일반적 풍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철학에서는 신(新)칸트학과·베르그손·오이켄 등의 ‘생(生)철학’과 예술의 ‘상징주의·신낭만주의’ 등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다만 다윈 진화론에 대한 이해와 그 바탕에 자신의 ‘생명의식’을 공고히 한 베르그손의 철학이 좀 더 다윈 진화론과 친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생명의 문제를 철학적 대상으로 한 서구의 철학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음을 강조했다.³⁷⁾ 이 책에서 철학자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二郎)는 일본과 한국 생명 담론의 중요한 원천으로 베르그손 철학의 수용을 들었다.³⁸⁾

이 시기 일본의 사상계에서는 러일전쟁으로 조성된 피로감과 허무감을 반영하는 자연주의에조차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문학사상으로는 시라카바파(白樺派)의 ‘인도주의’가, 철학사상으로는 ‘신이상주의’였다. 이러한 일본 지식계의 새로운 모색은 당시 일본에 유학하던 조선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베르그손 수용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와 이상주의에 투철했던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1878-1923)와 다이쇼시대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오스기 사카에에 주목해야만 한다. 어느 인물을 매개로 하느냐에 따라 베르그손 수용의 성격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두 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과 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아리시마는 좀 더 개인에, 오스기는 사회를 향한 사유에 몰두했다. 이를테면 김억은 아리시마 다케오를 통해 베르그손을 수용했고, 염상섭은 오스기 사카에를 매개로 베르그손과 소통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좌절로 일어난 5·4 신문화운동 기간 베르그손에 대한 관심은 높아만 갔다. 중국 지식인들이 베르그손에 공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불교철학과 베르그손의 생명주의의 내적 연관성을 들 수가 있다. ‘생명’에 대한 사유를 ‘해석학적’으로 볼 때, 불교철학과 베르그손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모든 생명의 동등함,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삶에 대한 긍정,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사랑 등이 그것이다. 이때 중국에는 유식불교(唯識佛敎)³⁹⁾ 부흥 바람이 불었다.

37) 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38) 中村雄二郎, 「哲學的に見大正生命主義」, 위의 책, 26-35면 참조.

39) ‘유식사상,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단지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유식불교를 접한 중국 지식인들은 베르그손에 환호했다. 세계를 생명의 우주인 동시에 유기체적 전체, 현상계는 무기력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물질계 내부에도 ‘생명의 흐름’이 관통, 그 흐름이 물질을 유기체로 형성한다는 베르그손의 사유에서 유식불교의 철학적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유식불교 또한 이 우주를 죽어 있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우주’로 본다는 관점에서 베르그손과 통했던 터이다.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량치차오 또한 베르그손에 대해 공감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 시찰을 다녀온 후 세계대전 후의 유럽 상황을 기록한 『歐遊心影錄』을 발표했는데, 집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生哲學’이었다. 유럽시찰 기간 동안 량치차오는 베르그손과 그의 스승인 부트루(Emile Boutroux, 1845-1921), 오이켄(Rudolf Eucken, 1846-1926) 등을 만나 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의 현실과 전통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생활의 의의와 자유의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철학은 량치차오 후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가 정치사회운동에서 전통유학의 가치 부흥에 초점을 맞춘 학술문화운동으로 활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⁰⁾

1920년대 한국의 근대문학 해석의 장에서 베르그손을 니체·쇼펜하우어·오이켄 등과 함께 ‘생철학자’란 범주로 논해 왔다. 베르그손의 철학이 근대의 물질문명과 과학이성에 반기를 들고 ‘직관’과 ‘우연’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과학적 사고를 외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이것은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에서 진화론적 상상력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

외계의 사물은 마음의 표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유식론은 종교와 철학사상 중 인식론(epistemology)에 속하는 선(禪)에 관련된 불교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40) 이해경, 『梁啟超: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 태학사, 2007, 207면.

게 했다.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은 다윈 진화론에 바탕을 둔 생물학적 체계의 산물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 근대문학에서 베르그손 수용에서 오스기 사카에는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가 된다. 특히 베르그손의 생명적 약동, 이른바 ‘엘랑 비탈’의 가설이 오스기 사카에와 작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는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 해석의 주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이 자리하고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논의되었던 진화론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그 성격을 특정 짓고, 한·중·일 동아시아 수용의 경로를 고찰했다. 진화론을 기계적 진화론·윤리적 진화론·상호부조 진화론·창조적 진화론 등이 그것이다. 생물학적 바탕을 기초로 하되, 좀 더 형이상학적 관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 수용을 동아시아 근대 담론 형성의 ‘기축(基軸)’으로 보았을 때, 작가들이 어떤 진화이론을 자신의 인식론의 토대로 삼아 식민지 주체 형성을 이루어나갔는지를 추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작가들이 이와 연동해 시대 담론들에 어떠한 대응 태도를 보였는지, 이것이 작품세계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하나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작가들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분석은 ‘어느 국가·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즉 진화론 수용의 관계망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유형의 진화이론을 수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졌던 것이다. 같은 유럽이지만 영국·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진화론의 성격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일부의 오해와 굴절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향후 동아시아 각국의 진화론 수용에 그대로 나타났다.

기계론은 물리적 실재가 질량과 운동이라는 기계적인 원인들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철저한 기계론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삶 전반-감각·감정·사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조직-까지도 이 질량과 운동의 법칙의 지배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본질주의적이고 엄격한 결정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물학적 환원론이라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오늘날 리처드 도킨스가 주창한 ‘이기적 유전자’ 가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독일 철학은 기계론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계론을 특성으로 하는 그의 진화이론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도쿄제국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 교육정책의 상징적 존재였던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는 독일의 국가주의 사상에 동조, 헤켈의 진화론을 일본에 적극 소개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격의 기계적 진화론은 신소설의 이인직과 1910년대 이광수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다.

윤리적 진화론의 출발은 찰스 다윈이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토머스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5)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4)가 출간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영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의 옌푸(嚴復, 1854-1921)가 그 책을 1899년 『천연론(天演論)』이란 이름으로 번역·출간하면서 중국에 처음으로 진화론을 소개했다. 한국에서도 일본이 아닌 중국이란 또 다른 진화론 수용의 통로가 마련됐던 셈이다. 『진화와 윤리』에서 헉슬리는 진화 과정에서 윤리의 문제를 역설했다. 즉 인간의 윤리적 규범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관심은 옌푸가 헉슬리의 책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느냐의 여부다. 옌푸가 『천연론』에서 스펜서와 헉슬리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옌푸가 스펜서와 헉슬리

의 학설을 절충하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흐름은 애국계몽시대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고, 그 흐름은 1910년대 소설에서 상호부조 진화론으로 승화되어 이어졌다.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대표 저작 『상호부조론(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1902)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동물의 종 내부 개체들의 상호협동과 종과 종 사이의 상호부조를 비롯해 식물계의 단순한 세포 활동까지도 상호협동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13년이란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밝혀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한국 근대문학연구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던져준 과장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 사상을 조선에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다이쇼시대 대표적 아나키스트였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는 자신이 창간한 『近代思想』 제2호(1912.11)에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어 「동물계의 상호부조」(1915.9)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이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1910-20년대 조선의 상호부조 진화론 수용에서 오스기 사카에는 절대적이었다. 이 시기 크로포트킨과 오스기 사카에, 그리고 조선의 작가들로 이어진 사상적 네트워크는 한국 근대문학 해석에서 중요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양건식은 이 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작가이다.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손이 1907년 간행한 『창조적 진화(Évolution créatrice)』에서 본격 제기하기 전 과학과 철학의 역사 속에서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었다. 이미 데카르트가 역학적 입장에서 생명을 기계의 일부로 고정시켰을 뿐이었다. 베르그손은 『창조적 진화』 서문에서 “생명에 대한 이론은 곧 생명에 대한 인식”임을 역설했다. 자신의 형이상학이 생명개념 토대 위에서 구축됐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생명인식을 위한 방법론으로 (구체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실증

주의가 아닌 ‘실증적 자세’를 취했다. 그의 이론들은 ‘사실들의 선상(sur les lignes des faits)’에서 구체화 됐다. 이를 위해 먼저 베르그손은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했다. 베르그손의 이러한 ‘실증적 형이상학’의 면모는 대표적으로 『창조적 진화』 제1장 「생명 진화에 관하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장에서 그는 다윈주의·신다윈주의·라마르크주의·신라마르크주의·정향진화설·돌연변이설 등 당대의 진화이론이 제시하는 경험적 사실들을 상세하게 고찰하면서 이로부터 ‘진화는 생명적 약동(élan vital)의 지속’이라는, 이른바 ‘엘랑 비탈’ 가설을 제시했다. 1920년대 우리의 근대문학 해석에서 베르그손을 니체·쇼펜하우어·오이켄 등의 ‘생철학’이란 틀에 가두어 진화론적 상상력을 배제하는 것은 진화론과 근대담론의 내적 연관성을 외면하는 맹점을 낳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베르그손의 생명적 약동, 이른바 ‘엘랑 비탈(élan vital)’의 가설이 일본의 오스기 사카에와 조선의 작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는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 해석의 주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염상섭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네 가지 유형별로 진화론의 성격과 동아시아 수용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 유형별 진화론의 수용 작가들을 특정하고, 그 내적 동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형효, 『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1991, 17면.
李澤厚 著·임춘성 역,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439-440면.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98면.
양일모, 『엔푸 :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태학사, 2008.
에른스트 마이어, 신현철 역, 『진화론 논쟁』, 사이언스북스, 77-78면.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 서강대출판부, 2010.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사, 2002.
와다 토모미(和田とも美),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예옥, 2014.
제임스 레이첼즈 지음, 김성한 옮김,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 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 나남, 2009, 130면.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크로포트킨, 김영범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르네상스, 2005, 29면.
찰스 다윈 지음, 김관선 옮김, 『인간의 유래 1』, 한길사, 2006, 167-169면·211-233면

2. 논문

-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176면.
류지한, 「윤리의 생물학화 :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연구』 제103호, 한국윤리학회, 2015, 4면.
———, 「윤리의 생물학화 :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연구』 제103호, 한국윤리학회, 2015, 3면.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역사연구회, 2012, 136면.
백지운, 「량 치차오 梁啓超의 사회진화론-계몽주의의 종교적 계구성」, 『중국어문학논집』 제55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327-328면.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입신출세주의·교양주의, 그 관계의 의미망과 191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과 예술』 제30집, 숭실대학교 한국문

학과예술연구소, 2019, 262면.

이아름, 「창조적 진화에 대한 두 개의 시선-베르그손과 종합진화론」, 『철학』 제113집, 한국철학회, 2012, 148면.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황수영, 「생성철학과 진화의 개념, 베르그손의 진화론 해석의 현재성에 관하여」, 『동서철학연구』 제57집, 한국동서철학회, 2010, 80면.

<Abstract>

The philosophical type analysis of evolutionary theory and the path of acceptance of East Asia in Korea, China, and Japan

YU, BONG-HEE

Darwin can be evaluated as a person who caused a change in perception in the existing scientific revolu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cientific philosophers called it the 'Darwin Revolution'. Darwin neutralized the reason for identity, essentialism, and the traditional worldview that had dominated the West, such as teleology, determinism, and mechanical theory, at once. Since then, the theory of evolution has expanded its influence beyond the biological level to the field of humanities, including literature. This paper categorizes the evolutionary theories discussed in our modern history into four categories, specifies their characteristics, and examines the path of acceptance of East Asia in Korea, China, and Japan.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evolutionary theory as a "key axis" of the formation of modern East Asian discourse, I think it can be a methodology that tracks which evolution theory was used as the basis for their epistemology and how writers responded to the discourse of the times.

Key words: theory of evolution, modern novels, modern literature, mechanical evolution, ethical evolution, mutual assistance evolution, and creative evolution

투 고 일: 2021년 11월 1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